이탈리아 최초의 올리브 오일 감별사 양성 전문학교

이탈리아 복서부의 항만 도시 입폐리마에 위치한 '국립 몰리브 오일 감밀사 학교'.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이 최고의 울리브 오일 감멸사가 되기 위해 미각과 후각을 섬세하게 연마하고 있다.

Taste Testing

The seaside city of Imperia, Italy, is home to the prestigious Organizzazione Nazionale Assaggiatori Olio di Oliva, where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fine-tune their palates to become discerning olive oil tasters.





오전 올리브 오일 시음 수업 시간, 장사인 카플로타 파세토는 오일 생품 3개 중 첫 번째 생품을 푼라스틱 컵에 따랐다. 학생들은 컵을 받아 든 뒤 손으로 감싸고는 냄새를 받고 조금씩 맞을 보며 시음 평가지를 채워갔다. "이번 오일은 어떤가요?" 콰세토의 질문에 학생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과일 향부터 목 쏘는 맛에 이르기까지, 오일이 지닌 다양한 속성을 각각 1에서 6까지 숫자를 사용해 장도를 측정하는 수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탈리아 최초이자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올리브 오일 감별사 양성 전문 교육 기관인 '국립 올리브 오일 감별사 학교'의 재학생들이다. 학교에 입학한 뒤 학생들은 가장 먼저 전문 용어를 악한다. "매우 정확한 표현라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전문 감별사가 되기를 꿈꾸는 일본인 학생 모리이마 요코의 말이다.

"감범사는 잘 조윤된 악기를 다루듯이 시음법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강사이자 감뱃사, 기술 고문인 마우로 아벨리오의 말이다. "두 명이 같은 오일을 시음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음은 예술 행위가 아니니까요. 진정한 예술품은 오일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It's the last olive oil tasting of the morning, and teacher Carlotta Pasetto pours the first of three samples into little plastic cups. Students warm the cups in their hands, smell, sip and then proceed to fill out a tasting sheet. "So what about this one?" asks Pasetto. A series of very precise answers follows. Each of the oil's attributes anything from fruitiness to pungency - is assigned a number from one to six to define its intensity.

The students giving these answers are enrolled in the Organizzazione Nazionale Assaggiatori Olio di Oliva (ONACO), or the National Organization of Olive Oil. Tasters, Italy's first and most prestigious international school devoted to olive oil. A specific terminology is the first thing they must become familiar with. "We need to communicate in a very clear way, and it takes quite some time to achieve this ability," says Japanese student Moriyama Yoko, who is taking the course in the hopes of becoming a professional taster.



사용 전 컵을 손으로 강해 오림을 때문하게 만든다(원목 베이지), 사용용 생품(위). 교장인 마르템로 스코치와 강사 카를로타 파세로(아래 오른쪽)

Students at the ONAGO warm cups of oil in their hands before tasting lopposite). An instructor prepares tasting samples (above). Instructors Marcello Scoccia and Carlotta Pasetto (below).

올리브 오염의 표준 사람들은 종종 윤리브 오일 시음과 와인 시음을 비교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세계다. "와인 시음은 좀 더 시작이고 주관적이죠. 반면 옮리브 오일은 엄격하고 잭퍈적입니다. 화학적 분석과 시음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등 정립한, 표준화된 상품이니까요." 과세토의 말이다.

"저 책은 윤리브 오일 감병사를 위해 처음으로 제작한 용어집이에요, 1983년 개교하면서 종이 책자로 용어집음 발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했죠. 제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짓도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지만요." 1985년부터 학교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바르바라 리카가 액자에 담아 사무실 박에 걸어둔 소책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라구리아 해 연안 임케리아 시에 위치한 이 올리브 오일 감맹사 학교는 유서 깊은 올리브 오일 회사인 '사소'의 전 (前) 본사 건물에 자리 잠고 있다. 초보자를 위한 5일 과정 이수 후, 마지막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은 버진 올리브 오일 감발에 대한 자격증을 받는다. 물론 전문 올리브 오일 감별사가 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초보자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2단계인 3년 과정이 기다린다. 2단계 과정은 학교에서 전행하는 실습 및 이론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A GLOBAL REACH "[Assessors] should use the tasting method like a machine, a fine-tuned instrument," says Mauro Amelio, who works with the ONACO as a teacher, taster and scientific advisor. "The same oil, tasted by two different people, should be judged in an almost identical way. Tasting is not an art form. I believe the real artwork is the oil." People often compare olive oil and wine tasting, but the two are worlds apart. "An olive oil tasting is very different from a sommetier session," explains Pasetto. "Wine tasting is more poetic and subjective. We need to be stricter and more objective - this is also due to practical. reasons. Olive oil is the only standardized product where tasting, together with a chemical analysis, is a legal requirement in order to establish the product category."

Barbara Ricca, the organization's office manager since 1985, keeps a framed copy of a booklet on her office wall. "That is the very first vocabulary for the olive oil taster," she points out. "It was put on paper and printed by the ONADO back in 1983 when we opened our doors. It's been a constant evolution ever since. When I started to work here, we organized courses locally. We started from scratch. Now we attrac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Located in the city of Imperia on the Ligurian coast, the ONAOO is housed in the former headquarters of the historic olive oil company Sasso. It offers a five-day first level course, and students who pass the selective trials at the end receive a Certificate of Physiological Suitability for







71 APRIL 2017

병행하도록 구성돼 있다.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친 학생은 학교의 전문 강병사 영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용리보 오일 산업이 발달한 나라의 학생이 대부분일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올리브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에 따라 세계 각자에서 학생들이 찾아온다. 타이완 출신의 린수권은 가족이 중국에서 올리브 오일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다. "전에는 여러 상품을 다무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찾던 아버지가 올리브 오일 사업에 집중하기로 하셨어요. 현재 중국은 고급 식계료와 관련한 산업의 공제막이 엄청나가든요. 고급 올리브 오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입학한 겁니다. 관련 지식을 습득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용리브 오일 강별사 학교는 수업 과정에서 이탈리아산 용리브 오일만 취급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학교의 강점은 여러 제품을 공행하게 다룬다는 전에 있다. '우리는 제품 상표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에 대해 의견을 나놉니다. 어떤 상업적인 목적도 없고 특정 업체를 후원하지도 않죠. 브랜드에 대한 연급 없이 오로지 오일의 맞과 항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집중합니다. 옵리브 오일의 품절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말이죠. 흡풍한 옵리브 오일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일본부터 남편구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부회장이자 교장을 맡고 있는 마르펜로 스코셔의 설명이다.

전문 강별사 경력 30년의 스코치 교장(이래), 개별 시음 공간에서 오일 생목을 강물하는 학생들(위 오른쪽), 음리보 오일 강물사 학교 건강(오른쪽 페이지).

Scoccia has been a professional taster for 30 years (below). Students taste samples in the ONADO's tasting booths (above). The school occupies the former Sasso olive oil company building (opposite).





Tasting Virgin Olive Oils. To become a professional clive oil taster requires much more time, however.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first level can move on to the second level, which takes three years to complete and combines online sessions with practical and theory-based lessons in Imperia. Upon successful completion, students are included on the list of ONAOO professional tasters.

Course participants don't necessarily come from countries that have large olive oil industries, as might be expected. Worldwide interest in olive oil is growing, and students from all over come to Imperia. Taiwanese-born student Lin Shu Jen, whose family has an olive oil business in China, is also enrolled in the second level course. "We used to focus on several products in the past. Ten years ago, my father was tooking for new ideas and decided to focus on olive oil. There is a lot of potential for this kind of industry in China right now. High-end olive oils are regarded as desirable luxury food items. That's why I'm here — to acquire knowledge to bring back home."

The ONADD's courses don't focus exclusively on Italian ofive oil. Rather, the school's strength lies in its impartiality. "Focusing on the different cultivars without talking about the brands is what we do. This enables us to concentrate purely on quality, which is something that can be achieved worldwide — from Italy to Greece, from Japan to the southern hemisphere," explains Marcello 지난 30여 년간 전문 감별사로 활동하며 평생을 올리브 오일 산업에 종사해온 스코차는 '강험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며 '우리는 올리브 오일의 세계에 살고 있고, 맛과 향을 감별하는 건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장기 화장에 장목한 하생들 또한 스코차의 활학을 공유한다.

"처는 전문 감행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곳에서 그 답을 찾았죠.
윤리브 오일 사음을 매우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생산자, 유통업자, 미식가 등 서로 다른 분야분 추구하는 이들의 요구에 맞춰 수업을 진행합니다." 에밀리 보렘의 말이다. 프랑스링 코르시카에서 자신의 올리브 농강을 운영하며 오일을 제조하는 브랜은 현재 2단계 과정 중 3년 차에 집어들었다. 수년간의 배용 끝에 보렴은 자신의 감별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를 뚜렷이 느낀다고 말한다. "다양한 감각을 통원해 이것이 어떤 엑스트라 버진 윤리브 오일인지 정확하게 석발하고, 오일의 괜합과 그 원인까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 눈앞에 더 넓은 세계가 펼쳐진 거죠. 여기서 배운 기술을 설계 업무에 활용하면서 윤리브 오일 사용을 전보다 다욱 중길 수 있게 되었어요." 중을 바다는 스로라에서만 제로 모루네요. Scoccia, the ONAOO's vice president and school director:
"Experience is another key factor. I've been a professional taster for the past 30 years, and all of my colleagues here have lifelong careers in this field. We live in the world of olive oil, and tasting is an essential part of our daily lives."

Long-term students share the same philosophy. French student Emitle Borel, who makes oil from the olives she grows on her farm in Corsica, is in her third year of the second level course. "I needed the knowledge that comes with being a professional taster, and the ONAOO was the answer." After years of practice, Borel can see how much she has improved. "The ONAOO has given me the tools to clearly and precisely distinguish what extra virgin olive oil, is, in its multiflude of sensory aspects, and also to clearly distinguish any defects and their causes. It has opened up a wider world in front of my eyes. I use these skills in my own work and enjoy the taste of olive oil even more now!"

🕞 By Marina Spironetti Photographs by Carlo Morucchio

